

약용작물 '복령' 대량재배 길 열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하우스 재배 성공
노동력 절감·농가 새 소득원 기대
생산성 증대 추가 연구 능가 보급



고 있다.

노지 매물재배 방식은 농가의 진입장벽은 낮지만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재배기술 숙련도에 따라 수량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으며, 시설 재배법도 초기 경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상토를 이용한 복령 하우스 재배기술을 개발해 기존 노지재배의 단점이었던 장기간 재배와 과도한 노동력 투입 등을 보완했다.

복령을 하우스 내에서 재배할 경우 저온기 지온 상승으로 군사활착이 양호해지고 잡균의 피해율도 적고 수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또 장마철 경우 차단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토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수확 작업도 용이하다.

시는 하우스재배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생산성 증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한 추가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완옥 정읍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복령 재배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향후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적극 보급해 새로운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시 대리운전 기사·택배 노동자 쉼터 운영

어양동에 165㎡ 규모 조성

익산시는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기사 등의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쉼터는 이동 노동자가 많은 어양동의 한 건물 2층에 165㎡ 규모로 조성됐다.

이동 노동자들이 대기 시간에 피로를 풀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냉난방기와 휴대폰 충전기, 안마의자, 커피머신, 텔레비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춰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로 해소, 휴식, 안전한 노동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쉼터 이용자들이 부

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노동자, 방문판매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이동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문을 닫는다.

익산시 관계자는 "마땅한 휴식 공간도 없이 장시간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라며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김제시, 새만금 방조제 이어 동서도로 관할권 충돌

군산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반려 요구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지역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 용역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2호 방조제인 김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김제관할 구역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군산시는 전북도에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북도는 지난 3월부터 전북연구원에 의뢰해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 용역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개발청 역시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런 현실에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필수서류인 측량 성과도 없이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김제시의 행정구역 신청은 대응적인 차원의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군산시도 관할결정 신청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남북2축도로가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지만, 완공전에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된다면 추후 남북2축도로의 주요 간선도로 교차지역과 관련한 지역 간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1월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정건의 대법원 기각 결정이 나와 '헌법소원 (2021헌바 57)'을 청구했다.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 대상이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순창군 지적 보존문서 전산화 작업 연내 마무리

순창군이 지적 보존문서의 전산화 작업<사진>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13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2019년까지 생산된 지적 보존문서를 고품질 컬러스캐너로 이미지화해 '지적 영구문서 관리시스템'에 탑재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지적 측량결과도, 토지 이동결의서, 지적도, 임야도 등 총 12만5천304장의 보존문서를 전산화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기록물 훼손, 멸실 등에 대비하고 일제 검정기부터 현재까지의 지적공부와 토지이용사유 및 측량결과 등 필지별



모든 기록을 한 번에 볼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에 어업인 편의 제공 어업지도사무소 개소

고창에 어업인의 소통과 불법어업 관련 문의 등 다양한 어업인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업지도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사진>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신축공사를 마치고 지난 1월 준공된 상하면 구시포항의 '고창군어업지도사무소'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구시포항에는 관내 어선 100여척이 정박해 있고 고창군 소속 15t 어업지도선과 3.5t의 고속단정이 계류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지도사무소가 없어 어선사고 및 비상상황 대응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무소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창군 어업지도사무소는 총 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040㎡의 부지에 사무실, 어업인 회의실, 비품 창고 등 연면적 257.61㎡의 규모로 지어졌다.



고창군 관계자는 "어업지도사무소 준공으로 어업인의 안전 조업 지도 및 해난구조 등 해상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에 어린이과학체험관 들어선다

과학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

20억원 들여 광한루에 내년 개관

남원에 어린이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즐길 수 있는 어린이과학체험관이 들어선다.

13일 남원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1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남원시가 최종 선정돼 어린이과학체험관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 10억원 포함 총 20억원이 투입되는 어린이과학체험관은 광한루원 옆 경외상가를 활용해 지역 어린이들이 쉽고 폭넓게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된다.

기획 전시공간을 비롯해 모래놀이와 물놀이 시설 등이 야외에 배치되고 과학체험공간에서는 어

린이 과학실험을 해보고 공작물이나 교구를 갖고 놀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

어린이과학체험관이 조성되면 광한루원을 비롯해 남원에촌과 전통문화체험단지, 남원다움관 등과 연계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어린이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게 돼 기쁘다"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